

가상세계 속에 보인 일본어의 가족 간의 문말 표현에 대해

- 교수매체로서의 문말의 정중체와 종조사 사용에 대해

양 정 순
(경희대학교)

1. 머리말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신문, 잡지 등 다양하고 풍부한 매스미디어의 노출로 인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이용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실현장에서도 학습자의 니즈에 맞춰 일본어 학습의 교수매체로서 출판 간행된 교재 이외에 부교재로 만화·애니메이션·드라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만화는 풍경이나 등장인물의 대사가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학습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실질교재¹⁾로서 교실현장에서 이용되는 동시에 한국어역으로 출판된 도서를 병행해 학습자의 독학교재로도 이용된다. 그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언어는 현실의 언어를 테이프를 녹음해 그대로 재생한 것이 아니라 회화용으로 재구성된 언어²⁾이다. 이는 곧 일본어 특징 중의 하나인 성차 및 상하관계의 식별에 마카가 되는 문말 표현들이 작가에 의해 재구성되고 학습자가 그런 표현을 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1) 高見澤孟,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2』, アスク, 2004, p.106.

2) 金水敏, 『ヴァーチャル日本語役割語の謎』, 岩波書店, 2003, p.32.

하므로, 가상세계에서 사용된 문장의 사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교육 과정이 일반적으로 문말의 ‘데스·마스형’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존경·겸양 등의 경어표현과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학습³⁾해 나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일본어 ‘데스·마스형’의 정확한 전달이 요구되는 동시에 성차의 마카가 드러나는 문말의 종조사 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실질교재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작품을 통해 대인관계의 출발점인 가족 구성원, 즉 경어의 대인관계 상 ‘우치(内)’에 속하는 인물 간의 대화문을 대상으로 문말의 정중도와 종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문말 표현과 종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小川早百合⁴⁾는 양케트를 이용해 현대일본어의 남녀차가 있는 종조사와 인칭 표현을 비교 분석하면서 일본어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을 제시했고, 井出洋子⁵⁾는 일본어 회화 속에 나타난 성차의 특징으로서 ‘데스·마스체’ ‘인칭’ ‘종조사’를 제시하고 영어표현과 비교·분석했다. 中村純子⁶⁾는 종조사의 남성어·여성어가 ‘기본체’와 ‘데스·마스체’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인토네이션을 이용해 분석했다. 杉山純子⁷⁾는 문학작품 안에서 보인 회화문의 문말 표현에 나타난 작가별 남녀 캐릭터의 표현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3) 安田芳子外, 『現代日本語における男女差の現れと日本語教育』, 小出記念日本語教育論文集7, 1992, pp.73-87.

小川早百合, 「現代の若者会話における文末表現の男女差」, 『日本語教育論文集—小出調子先生退職記念—』, 凡人社, 1997, pp.205-220.

4) 주3)과 같음.

5) 井出洋子, 『日英比較講座第5巻文化と社会-待遇表現と男女差の比較-』, 大修館 1982, p.153.

6) 中村純子, 「終助詞における男性語と女性語」, 信州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1, 2000, pp.1-11.

7) 杉山純子, 「インフォーマルな会話の文末表現に表われる女性語・男性語をめぐる作家の個性—吉本ばなな『アマリタ』と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 岐阜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第2号, 1999, pp.49-57.

이와 같이 문말표현 및 종조사에 대한 연구는 의미 분석, 성차 등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본고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가족에 두어, 남녀 식별의 마카가 되는 문말의 종조사와 정중도(정중체(デス・マス형)와 보통체)를 성차에 따라 비교하고 한국어역과 대조해 교수매체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고 국내 방송에서도 리메이크된 작품 및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 등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으며, 작품 성향에 따라 과거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 스포츠, 추리 및 경찰을 배경을 배경으로 한 탐정물,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일상물, 외국 배경 및 판타지를 소재로 한 이국(異國)물, 의·과학물, 액션물로 나눴다.

III. 가족 간의 정중체와 보통체 사용도

정중체(デス・マス형)는 청자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외부사람과 이야기 할 때 사용되고, 보통체는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고 한다⁸⁾. 특히 본고의 분석 대상인 가족 구성원 간의 경우, 전전(戰前)에는 부모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는 보통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분석 작품 속의 가족 간에 사용된 대화의 문말 형태를 ‘데스·마스형’의 정중체와 보통체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표 1] [표 2] [표 3]과 같았다.

[표 1] 부모와 자녀간의 정중체(デス・マス형)와 보통체 사용수

화자	청자	시대물		스포츠물		탐정물		일상물		이국물		의·과학물		액션물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모친	딸	6	25	8	0	57	2	404	15	79	2	19	0	5	0
딸	모친	15	17	7	0	29	2	273	15	38	4	11	1	13	0
모친	아들	14	48	72	4	70	3	142	26	55	22	104	0	131	5
아들	모친	6	9	37	2	37	3	92	7	44	34	73	4	31	32
부친	딸	146	46	78	3	40	0	431	6	15	0	21	0	29	0
딸	부친	52	16	58	4	44	14	381	17	8	8	10	1	15	1
부친	아들	169	0	59	1	19	0	133	0	86	0	178	0	355	0
아들	부친	5	85	31	0	13	3	85	4	14	35	108	4	119	55

8) 名柄迪, 『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敬語』, 荒竹出版, 1995, p.5.

*시대물

- (1) 모친:これでは殿がおかわいそうよ。小萩はきつと殿のことを冷たいひどい父君だと思っていますよ。
딸:いいのよ。
- (2) 모친:唉や!!何です、これは?何を煮ているのです?
- (3) 모친:わたくしのお話をちゃんと聞いているのですか!
아들:はい、母上。聞いております。
- (4) 모친:おまえさまが南方様の事をお話したのですか。
아들:いいえ、どうしてご存したのか解りません。
- (5) 부친:よいか!既成事実がモノをいうのだぞ。瑠璃や。
딸:けど父さま...いくら何でも急すぎるわよ!
- (6) 딸:吉野では度々藤宮さまからお文をいただいたの。...(略)ひとこと帰京のご挨拶に参りたいのだけど。
부친:ああ、もちろんそうするのが分別というものですよ。
- (7) 부친:見舞いに来てくれたか。
아들:いえ、今日はおうかがいしたことがありまして参上いたしました。
- (8) 부친:これで瑠璃と高彬殿のことは片付いたも同然。わしもやっと肩の荷が降りるといふものだ。
아들:うん。そうだね。

*스프츠물

- (9) 모친:ちょっとまってて。すぐタツちゃんの分つくるからね。
아들:いいよ。
- (10) 모친:洗濯中なんだよ、少しまってな。
아들:だめだよ!そんなことしてたら死んじゃうぞ!
- (11) 딸:お店はどうしたの? 부친:ちゃんとやっていますよ。
- (12) 아들:はい、上杉。
부친:父デース!おどろいたなァ今の地震!しかし、心配するな!みんな無事だからな!

*담정물

- (13) 딸:お母様.....これから「凶鳥様」の三つ目の戒めを果たしてまいります。

*일상물

(14) 아들:教室のそうじをひとりでやりました。 모친:スネ夫さん、感
心します。

(15) 모친:お客様になんですか。許しませんよ!!

(16) 딸:もしもしとーちゃんですか。 부친:はい、とーちゃんです。

(17) 부친:おい千鶴ママすごく楽しみにしてるぞ。いいとこみせな
きゃな。 딸:うん!いいとこ見せるよ。

*이국물

(18) 아들:お母はんやめて!首のホネ折れる!

(19) 아들:愚ろうなどととんでもない。その逆です。義母上。

모친:.....(略)その逆とはなんです?!いくら皇帝の皇子でも次代に
よってはゆるしませんよ。

(20) 아들:父上、姉上を黄金と交換するなどわたしは反対です。

부친:黙れ、マッティワザ。

*의·과학물

(21) 모친→아들:何だ、あんた。キリコの部屋にいたのかい!!

(22) 아들→모친:お母さん、姉ちゃんをあんまり悪く言うな。

*액션물

(23) 모친:おめえがちいさなコドモだ!!コドモらしくしてりゃええっ!!

아들:.....うるさーい!!!!!!

[표 1]의 부모와 자녀라는 대인관계에서 사용된 문말의 정중체(デス・マス형)·보통체 사용을 보면, 과거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과 이국물의 왕실 분야에서 연령상 손아래의 인물, 성차상 여성이 정중체를 사용한 예가 많았고, 그 외는 보통체 사용이 대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보통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 정중체 사용이 보이기도 했다. 모친이 자녀에게 정중체를 사용한 예로서 예(15)와 같이 일상물 등에서는 훈계나 충고할 때에 보였는데, 이는 예(2)(19)와 같이 시대물과 이국물의 왕실분야에서 보였던 정중한 표현과는 다소 달랐다. 부친이 자녀에게 정중체를 사용한 예로서 예(6)와 같이 기본적인 예의를 언급할 때, 예(11)과 같이 상황을 보고할 때, 예(12) ‘父デス’와 같이 놀리거나 장난칠 때, 예(16)와 같이 전화 놀이 등, 단호함과 장난기가 있는 특별한 장면에서 보였다. 전

전(戰前)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중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 것과 같이 예(3)(4)처럼 시대물에서는 자녀의 정중체 사용이 많았다. 또 예(20)와 같이 상하관계가 뚜렷하게 제시된 이국물의 왕실분야에서도 ‘스·마스형’의 사용례가 보였다. 그러나 자녀의 정중체 사용이 과거를 배경으로 한 작품과 이국물의 왕실분야에서 모두 확일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소녀 독자를 대상으로 한 로맨틱·코믹 작품에서 인물의 특성과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일 때는 예(5)(19)와 같이 자녀의 정중체와 보통체가 병행된 경우도 보였다. 이와 같이 작가에 의해 구성된 가상세계에서의 부모자녀의 정중도에 관한 발화는 상하관계에만 의존해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 등장인물의 특징, 장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대화문을 교수매체⁹⁾로서 이용할 때 한국어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위의 예문 중 번역 출판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모친: 그러면 아버지가 불쌍하잖아? 고하기는 아마도 대감마님을 냉정하고 못된 아버지라고 생각할거야. 딸: 괜찮아요.
- (2) 모친→딸: 사키! 이걸 뭐냐? 뭘 꿰고 있지?
- (3) 모친: 내 말 제대로 듣고 있는 게냐? 아들: 아! 예, 어머니, 듣고 있습니다.
- (4) 모친: 네가 미나가타 님에 대해 얘길 했느냐?
아들: 아뇨……어떻게 아시고 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 (5) 부친: 알겠냐! 일을 저질러야 한다. 루리. 딸: 하지만, 아버지……이건 너무 빨라요!
- (6) 딸: 요시노에서 후지노미야님으로부터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略)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도리겠지.
- (8) 부친: 이제 루리와 다카아키라의 일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 이제 겨우 한시름 놓겠군.
아들: 정말 그래요.
- (10) 모친: 지금 세탁중이야. 조금만 기다리렴. 아들: 안돼요! 그랬다간 저 죽을지도 모른다구요!

9) 주1)과 같음. 교수방법으로서 「文法訳読法」, 「AL法」, 「CLL法」 등에 적용할 수 있다. p.148.

- (11) 딸: 가게는 어떻게구요? 부친: 물론 확실히 하고 있지.
 (12) 아들: 네, 우에스기입니다.
 부친: 아빠다! 놀랬지? 방금 지금! 하지만 걱정마라! 모두 무사하니까!
 (14) 아들: 혼자서 교실 청소를 다 했어요. 모친: 어머니, 우리 비실이는 착하기도 하지.
 (15) 모친→아들: 손님한테 자꾸 이럴 거야! 용서 못해.
 (16) 딸: 여보세요? 아빠세요? 부친: 예, 아빤니다.
 (18) 아들: 엄마, 제발—꼭 빼 부리지겠어.
 (19) 아들: 우롱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마마마.
 모친:……(略)그 반대라니, 무슨 애기지?! 아무리 황제 폐하의 왕자라 해도 경우에 따라선 용서치 않겠소!!

모친의 정중체(デス・マス형) 표현이 예(2)(3)처럼 두루 낮춤의 ‘해체10)’로, 예(19)처럼 ‘해체’와 예사 높임의 ‘하오체’로, 자녀의 보통체 표현이 예(6)(8)(19)처럼 두루 높임의 ‘해요체’와 아주 높임의 ‘합쇼체’로 번역되는 등 발화자의 의도와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일본어 문장에서 사용된 부모와 자녀의 정중체 표현이 한국어의 ‘합쇼체’와 ‘해체’로, 자녀의 보통체 표현이 ‘해요체’로 번역된 것처럼 번역물에서도 저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실질교재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장면 상황, 인물의 특징 등이 번역가의 창의성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아내와 남편 간의 정중체(デス・マス형)와 보통체 사용수

화자	청자	시대물		스포츠물		탐정물		일상물		이국물		의·과학물		액션물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아내	남편	26	204	31	11	21	4	407	21	10	16	47	1	60	0
남편	아내	210	0	33	13	26	0	491	2	34	0	41	0	52	1

*시대물

(24) 아내:お館さまは近々躑躅が崎へお引き揚げになるというのは本当でございますか。

남편:ああ、医師ももうよいと言っているからそうしようと思っ

10)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1987, pp.329-333.

ている。

(25) 아내:ねえ、あんたもう帰ろうよ。あったかい汁粉でも食べてさあ。

남편:帰りにえんなら先に帰んな。

*탐정

(26) 남편:若い頃はよく山歩きをしたんだ。こんな森なんとか脱出してみせるさ

아내:わたしは行かないわよ

*스포츠

(27) 남편:か、母さん!明青学院がまだ残ってますよ。

아내:してますよ。昨日、南ちゃんが教えてくれたもの。

*일상물

(28) 아내:最初のうちだけよ。どうせすぐあきちゃう。

남편:けど、さっき風呂にまで持ちこもうとしたんだぜ。

*이국물

(29) 남편:その娘がなぜそちの宮にいるの?

아내:お忘れてございますか、陛下。わたしは皇妃であるとともに大神殿の神官も兼ねるもの。

(30) 아내:マッグシャルラト姫に書簡を送って根回ししてみるわ。

남편:ああ、それがいい。

*의·과학물

(31) 아내:うそばっかり...あっ、あんた一また出てくのかい!!

남편:うっせえなあ!!

*액션물

(32) 아내:も...もういいんだ...だけんど3年たったらせてえ拳法やめさずからな.....!

남편:ほ...ほんとにすまなかった...オラとしたことがつ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간의 정중체(デス・マス형)와 보통체의 사용수를 보면, 정중체의 사용은 여성인 아내 쪽에서 더 많았다. 특히 시대물 쪽에서는 예(24)와 같은 어형의 정중체 사용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배경으로 한 작품 모두 정중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예(25)와 같이 대부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친밀도가 매우 높은 분위기에서는 보통체의

사용이 보였다.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발화 형태는 등장인물의 특징에 따라 제시되었다. 이국물에서 보인 아내의 정중체 사용은 예(29)처럼 주로 왕실분야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아내인 황후의 발화가 반드시 정중체로 한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30)처럼 시간을 역주행한 젊은 여성의 황후가 황제에게 보통체를 사용한 것처럼, 같은 작품에서 조차 정중체·보통체에 대한 일관된 표현을 보이지 않고 장면 상황 그리고 캐릭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화자가 남성일 때, 남편은 아내에게 보통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간혹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도 예(27)와 같이 정중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보다 장난, 놀람, 정보 확인의 의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교수 매체로 접근할 때는 장면 속의 발화자의 특징 및 장면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아내와 남편사이의 대화문을 교수매체로서 이용할 때 한국어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위의 예문 중 번역 출판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5) 아내: 여보, 이제 그만 돌아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들쥌요?
- 남편: 돌아가고 싶으면 먼저 돌아가……
- (27) 남편: 여, 여보! 메이세이고등학교가 아직 남아 있어.
- 아내: 알고 있어요. 어제 미나미가 알려줬거든요.
- (28) 아내: 처음이라 그런 거야. 저러다 말 거라구.
- 남편: 하지만 아까 목욕탕까지 메고 들어갔는걸.

일본어 문장의 아내와 남편의 보통체 표현이 예(28)과 같이 ‘해체’로 번역된 경우가 보였으며, 또 아내의 보통체 표현이 예(25)(27)와 같이 ‘해요체’로 번역되거나 남편의 정중체 표현이 예(27)과 같이 ‘해체’로 번역된 바와 같이, 정중체(デス・マス형)와 보통체에 관한 번역은 통일성이 다소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형제자매 간의 정중체(데스·마스형)와 보통체 사용수

화자	청자	시대물		스포츠물		탐정물		일상물		이국물		의·과학물		액션물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보통	정중
형	남동생	31	0	151	0	16	0	2	0	76	5	8	2	171	0
남동생	형	8	10	129	2	15	0	0	0	27	73	8	1	76	0
언니	여동생	3	0	0	0	101	1	46	0	84	8	0	0	0	0
여동생	언니	2	0	0	0	51	9	58	0	58	3	0	0	0	0
오빠	여동생	48	2	76	0	0	0	3	0	151	0	0	0	0	0
여동생	오빠	31	48	93	3	0	0	2	0	80	4	0	0	0	0
누나	남동생	78	1	19	1	43	2	0	0	37	3	58	8	5	0
남동생	누나	83	0	8	0	41	0	6	0	15	15	57	0	3	0

*시대물

(33) 여동생:兄上すぐに戻ってきますから。

오빠:ならん!物見遊山の旅ではないぞ!

(34) 여동생:姉ちゃん何かあったの?

언니:近所がうるさいから縁側から出かける。留守をしてくれ。

(35) 남동생:驚いたな。どうして今日船が着くってわかった?極秘任務で行ったのに。

형:偶然おまえの上官の神大佐とお近づきになってな。僕が兄だと知って教えてくれた。

*스포츠물

(36) 남동생:まず南を甲子園につれていくことで、先取点をねらいますので.....よろしく!

*탐정물

(37) 언니:そんな危険なこと、もうやめたら?そして警察にもどってきたら?

여동생:あ~あまたその話?いい加減にしてよ!!わたしは一生この仕事を続けます!!

*일상물

(38) 언니:前テレビで見たよね!マヨネーズで消えるって。여동생:バターだよ?

*이국물

(39) 형:陛下、次のエジプト戦はすぐ始まりそうですか。

남동생:いいえ、兄上。エジプトも軍をたて直すのに一度本国に

もどるでしょう。

(40) 남동생: サウラはあなたの姪ですよ。それを.....。

누나: 兄上にはまだたくさんのお姫がいる。騒ぐほどのことはあるまい。

*의·과학물

(41) 남동생: 死ぬ〜〜!! 누나: あんな浅いところで死ぬわけないでしょ。

*액션물

(42) 형: 父親のおまえがなかなかききわけがわるいんでな。ちょっと息子を貸してもらおうとするか...

남동생: それいじょう近よってみろ!!!ぶっとばすぞっ!!!

[표 3]의 형제자매라는 대인관계에서의 보통체와 정중체(デス・マス형)의 사용수를 보면, 보통체의 사용이 많았지만 일부 시대물과 이국물의 왕실분야에서 정중체 사용이 있었다. 시대물과 이국물에서 보인 정중체의 사용의 경우, 예(33)(39)(40)와 같이 화자는 손아래의 인물로 청자인 손위의 인물에 대한 공손함을 나타냈다. 현대(탐정물·스포츠물·의과학물·액션물 등)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형제간에 보였던 정중체의 사용례는 대부분 ‘でしよ’¹¹⁾나 예(41)처럼 ‘でしよ’로 상하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또 예(36)과 같이 발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하거나 예(38)과 같이 같은 직장 내의 상사로서 대우할 때에 정중체의 사용이 보였다.

형제자매사이의 대화문을 교수매체로서 이용할 때 한국어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위의 예문 중 번역 출판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33) 여동생: 오라버니, 금방 돌아올게요. 오빠: 안돼! 우리는 유람하고 있는 게 아니야.

(36) 남동생: 우선 미나미를 갑자원에 데려가는 걸로 선취점을 노릴 테니까..... 잘 부탁해!

(38) 언니: 이런 위험한 짓은 이제 그만하고 다시 경찰로 돌아와!

여동생: 아~잉, 또 그 얘기! 그만 좀 해 뒤. 난 평생 이 일을 할 거야.

11) 辻村敏樹, 『敬語論考』, 明治書院, 1992, p.580. 화자는 ‘だろ’ 대신 ‘でしよ’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경의의 뜻을 표현한다고 한다.

(41) 남동생: 나 죽어~!! 누나: 그런 얇은 곳에서 죽긴 왜 죽니?

예(33)와 같이 여동생에게서 나타난 일본어 정중체 표현이 한국어로 ‘해요체’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지만, 예(36)(38)과 같이 화자의 단호한 의지 표출과 자매라도 직업상 상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인 일본어 문장의 정중체 표현이 한국어로는 일본어 문장에서 제시된 화자의 기분이 결여된 체 ‘해체’로 번역된 경우도 보였다. 또 ‘でしょ’는 예(41)처럼 아주 낮춤의 ‘해라체’로 번역되기도 했다.

이상, 가족 간의 대화에 나타난 문말의 정중체(デス・マス형)·보통체 사용례와 교수매체로서 이용될 수 있는 대화문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했다. 부모와 자녀의 경우, 전전(戰前)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중체를, 현재는 보통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과거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에서는 정중체 사용이 보였지만 전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품의 성향 및 독자, 인물 특징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보통체를 사용하는 예가 보였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한 정중체를 보면, 시대물에서는 공손함이 묻어 있던 반면 현대물에서는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외에도 경고·훈계·놀림·장난 등의 의도로도 사용되었다. 부부의 경우, 시대물과 왕실의 이국물 작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정중체를 사용한 예가 많았고 그 외의 작품에서는 보통체의 사용이 다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는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시대물이든 현대물이든 보통체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형제자매의 경우, 보통체의 사용이 많았지만 일부 시대물 및 이국물 속의 왕실 분야에서 손위의 형제에게 공손함이 함의된 정중체 사용이 보였다. 이와 같이 작품 내에서의 정중체와 보통체의 사용은 가족 구성원의 상하관계 이외에도 작가가 만든 장면 상황, 인물의 특징, 독자, 작품 내용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므로 정중체·보통체 사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학습자에 따라 단계적·체계적 예문 선정과 해설이 필요하다. 대화문의 보통체·정중체 사용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보면, 일본어의 정중체 표현이 ‘합쇼체’ ‘해체’ ‘해요체’ 등으로 번역되거나 보통체 표현이 ‘해요체’로 번역된 경우가 있어 학습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에 있어

서는 학습 대상자에 따라 예문 선정을 고려·검토해야 하며, 시대적 배경 및 장면의 상황설명, 등장인물의 특징, 그리고 번역의 창의성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

실질 교재에 나타난 문말의 정중체와 보통체 사용에 대해 가족 구성원인 부모자녀, 부부, 형제자매로 성차와 가족 위계에 따라 분석했는데 다음은 가족 구성원의 성차를 식별할 수 있는 문말의 종조사의 사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V. 종조사의 사용례

종조사란 문이나 문절 뒤에 붙어서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어에 있어서 남녀 성차를 보이는 표현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문말에 ‘かしら’ ‘のよ’ ‘わ’ ‘わね’ ‘わよ’ 등의 조사가 있으면 발화자는 여성이고, ‘ぞ’ ‘ぜ’ ‘な’ ‘い’ ‘よな’ 등이 있으면 남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¹²⁾ 이러한 규정과는 반대로, 小川百穂가 종조사의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ぜ’ ‘わ(だわ)’ 등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¹³⁾고 한다. 그러나 실질교재에서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교과 내용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교수 항목이다. 실질교재에 나타난 가족 간의 사용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성차를 식별할 수 있다는 ‘い’ ‘かしら’ ‘かな’ ‘ぞ’ ‘の’ ‘よ’ ‘わ’와 ‘のよ’ ‘わよ’ ‘よね’¹⁴⁾ 등 2개 이상이 결합된 종조사의 사용에 대해 가족 구성원 간의 세대별·성차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 4]와 같았다.

12) 名柄迪, 『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 助詞』, 荒竹出版, 1995, pp.150-153.

13) 주3)과 같음.

14) 주2)와 같음. pp.133-144.

[표 4] 종조사의 사용수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い	0	0	0	5	5	1	12	7	3	4	3	1	3	0
かしら	0	0	11	0	3	1	11	0	14	0	5	0	2	0
かな	5	3	8	16	3	1	5	11	0	5	1	4	0	0
ぜ	0	2	0	9	1	18	0	17	0	7	0	2	0	0
ぞ	11	1	0	30	12	81	2	95	0	43	0	17	0	2
금지な	3	0	1	4	2	25	0	18	0	4	0	2	0	1
명령な	0	0	2	2	1	5	4	4	0	3	0	6	0	0
な(あ)	38	7	9	68	6	112	24	84	1	60	0	9	1	4
なよ	1	1	0	5	0	4	1	8	0	0	0	0	1	0
ね	13	7	59	35	28	16	51	19	42	7	7	0	8	1
서술の	25	2	50	12	48	3	57	9	24	1	6	0	1	0
의문의	27	9	64	25	45	7	50	8	46	1	18	0	3	1
のね	0	0	8	0	2	0	5	0	4	0	0	0	0	0
のよ	3	2	58	0	19	1	26	0	45	0	4	1	2	0
よ	48	44	115	202	73	105	93	112	73	39	8	15	19	1
よな	0	0	0	4	0	7	0	9	0	0	0	0	0	0
よね	5	0	12	7	5	1	9	0	4	0	0	0	1	0
わ	0	0	57	2	45	0	33	0	36	3	3	2	2	0
わね	0	0	10	0	7	0	13	0	13	0	0	0	1	0
わよ	0	0	29	0	17	2	21	0	20	0	2	0	1	0
わよね	0	0	3	0	3	0	0	0	1	0	0	0	1	0
총 발화수	576	143	1156	1283	710	1361	958	1219	604	623	114	348	93	32

内田伸子¹⁵⁾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종조사를 분석한 결과, ‘ぜ’ ‘よな’는 100% 남성이, ‘わ’ ‘かしら’는 100% 여성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작품 내에서 여성화자가 주로 사용한다는 ‘かしら’ ‘わ’ ‘わよ’가 10대~20대의 남성 화자에게서 보이기도 했으며 남성화자가 주로 사용한다는 ‘ぜ’ ‘ぞ’가 10대~20대의 여성 화자에게서도 보였다. 여성화자의 종조사 사용례를 보면 여성화자의 대사문 4211개 중 ‘よ’ ‘の’ ‘わ’ ‘ね’ 등의 사용이 많았고, 여성이 주로 사용된다는 종조사 ‘かしら’는 1%, ‘のよ’는 3.7%, ‘わ’ ‘わね’ ‘わよ’ ‘わよね’는 7.5% 정도에 해당되었다. 남성화자의 종조사 사용례를 보면, 남성화자의 대사문 5009개 중 ‘よ’

15) 内田伸子, 「会話行動に見られる性差」, 『日本語学』第12卷 第6号, 1993, pp.156-168.

‘ぞ’ ‘な’ ‘ね’ ‘の’ ‘せ’ 등의 사용이 많았고, 남성이 자주 사용된다는 종조사 ‘ぞ’는 5.3%, ‘せ’는 1%, ‘なよ’는 0.3%, ‘よな’는 0.4%를 차지했다. 성차를 식별할 수 있는 종조사의 사용례는 일본어의 특징으로서 교수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데, 여성성이 있는 종조사 사용례와 남성성이 있는 종조사 사용례의 일부 한국어역은 다음과 같다.

- (43) 모친: うーんなにかしたかしら. 딸: 思い出してよ.
 모친: 음, 뭘 했더라. 딸: 기억해 봐요.
- (44) 아내:学校かな. 学校でいやなことでもあったのかしら.....
 아내: 학교에서 일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 (45) 누나: 女を人間として見てないんだわ.
 누나: 여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있어.
- (46) 딸: あ! とーちゃんだ! とーちゃん. はなびたのしーぞー.
 딸: 아! 아빠다! 아빠, 불꽃놀이 재밌어.
- (47) 딸: やさぐれてないわよ.
 딸: 안 꼬였어요.
- (48) 아내: しかたないねや. そこの物陰で用を足いたらえい. 幸い今日は朔日でつきもないぜよ.
 아내: 어쩔 수 없잖아요. 구석에서 일 좀 볼게요. 다행히 오늘은 그믐이라 달도 없잖아요.
- (49) 형: 今日の試合後— 寺島がいったそうだけ.
 형: 오늘 시합 끝나고 테라시마가 그랬어.
- (50) 남동생: 我が兄ながら...なんでこう弱っちいのかしら!
 남동생: 내 형이면서.....왜 이렇게 약해빠진 거야!
- (51) 남동생: そんなこと言ってみんなが消えちゃったら兄キ一生恨むわよーっ.
 남동생: 그런 소리 하다가 우리 전부 사라지게 되면 평생 형을 원망할거야—.
- (52) 부친: 身分の低い者が高い者を訪ねる時に女房を引き連れて行くなど聞いたことないわ
 부친: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분을 찾아갈 때 하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법.
- (53) 누나: 自慢じゃないけど、わたしは容姿でフラれたことなんかないわよ. 性格だい!

남동생: なお悪いわ!

누나: 자만하는 건 아니지만, 난 외모 때문에 차인 적은 없었어. 성격 탓이야!

남동생: 더 나빠!

위의 번역 예를 보면, ‘かしら・かな’는 예(44)처럼 ‘…ㄴ까?’로, 여성 화자에게서 보인 남성성의 종조사 ‘ぞ’ ‘ぞ’는 여성성의 종조사가 있는 예(45)의 ‘わ’와 예(47)의 ‘わよ’와 동일하게 ‘…어(아)’, ‘…어요(아요)’로 번역되었다. 남성 화자에게서 보인 ‘かしら’ ‘わよ’는 ‘…야’로, ‘わ’는 예(54)와 같이 명사형 이외에 예(55)와 같이 ‘…아’로 번역되었는데, 예(49)의 ‘ぞ’의 번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히 예(50)(51)의 남성화자의 ‘かしら’ ‘わよ’는 여성향의 남성화자(ニューハーフ)의 가면(ペルソナ)로서의 역할 어로 구사된 것¹⁶⁾인데, 한국어 역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흔히 한국어 역으로 ‘かな’는 ‘…ㄴ까, 을까’ ‘ぞ’는 ‘…테다, 는다, ㄴ다’ ‘よ・わ’는 ‘…아요, 어요’¹⁷⁾로만 제시하거나 ‘ぞ’ ‘わ’ ‘ぞ’ ‘かしら’ ‘かな’ 등이 남녀 성차가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수 학습에 이용할 때는 종조사의 남녀 차이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화자의 ‘わ’는 하강의 인토네이션을 수반하며 단정 및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표현¹⁸⁾인데, 문장만으로는 남녀의 구분이 안 되므로 음성매체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화자의 종조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영어에서는 부사어구나 문장 간의 관계를 이용하는¹⁹⁾ 것처럼 한국어역으로도 화자의 의향이 뚜렷하게 설명될 수단²⁰⁾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종조사의 사용수와 한국어 번

16) 주2)와 같음. p.173.

17) 申政澈,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휘비교 연구』, 어문학사, 2009, p.172.

18) 주12)와 같음.

19) 児玉徳美, 『意味論の対象と方法』, くろしお出版, 2002, pp.163-164.

He's coming toward us.→こっちへ来るよ・こっちへ来るぞ・こっちへ来るね・こっちへ来るさ・こっちへ来るわよ
위와 같은 영어 표현이 일본어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어는 화자의 의향이 ‘よ’ ‘ぞ’ ‘ね’ ‘さ’ ‘わよ’ 등을 이용해 언어화되는데, 영어는 부사어구나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추론한다고 한다.

20) 佐藤武義, 『展望現代の日本語』, 白帝社, 1996, pp.216-219.

역에 대해 서술했다. 이러한 종조사가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리한 결과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 대인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의 숫자는 종조사의 사용수

		시대물	스포츠물	탐정물	일상물	이국물	의·과학물	액션물	
모녀관계	모친→딸	보통체	よ(1) のね(1)	い(2)	わ(5) よ(5) のね(1) わよ(1) のよ(7) 서술의(4) 의문의(3) ね(1) な(あ)(1)	かしら(11) かな(1) わ(10) わね(8) わよ(17) 서술의(24) 의문의(37) のよ(20) よね(3) ね(35) な(あ)(9) よ(45)	わ(3) わよ(2) わね(3) よ(8) のね(1) のよ(15) よね(1) 서술의(5) 의문의(16) ね(5)	わね(1) よ(5) ね(2) 의문의(5)	かしら(1) 의문의(1) よ(1)
		정중체	よ(6)		ね(1)				
	딸→모친	보통체	のよ(3) のね(1) よ(3) 의문의(1) 명령나(1)	よ(3) 서술의(5)	서술의(4) 의문의(2) わ(3) よ(5) のよ(1)	よ(49) よね(5) ね(18) わ(1) わよ(2) のよ(2) な(あ)(3) 서술의(24) 의문의(14)	よ(4) わ(2) のよ(1) 서술의(10) 의문의(3) ね(3)	서술의(6)	よ(2) わ(2) ね(2) のよ(2) 금지나(1) な(あ)(1)
		정중체	わ(2) ね(2)		わ(1)				
모자관계	모친→아들	보통체	わ(1) のよ(2) 의문의(1) ね(1) わよ(1)	い(9) わよ(3) わね(1) よ(6) ね(9) 서술의(1) 의문의(3) な(あ)(2) 명령나(2)	よ(8) わ(12) わね(1) ね(4) 서술의(4) 의문의(4) のよ(3)	よ(19) よね(2) ね(13) 서술의(5) 의문의(5) のよ(6) 의문의(3) かな(1) かしら(6) わ(13) わね(4) わよ(7) わよね(1) な(あ)(2)	よ(7) かしら(1) ね(3) 서술의(1) 의문의(4) 의문의(2) のよ(1) い(4) な(あ)(1)	い(3) よ(26) 의문의(7) のよ(1) ね(9) かしら(1) わ(1) 명령나(3) な(あ)(1) なよ(1)	かな(2) ぞ(10) ね(3) 서술의(4) 의문의(8) よ(17) のよ(5) よね(1) わ(10) わね(4) わよ(6) わよね(1) な(あ)(5)
		정중체	わ(1) わよ(1) よ(5) ね(2)	よ(1)		よ(4) ね(1)	わ(3) わね(1) よ(3)		よ(2)
	아들→모친	보통체	よ(4)	よ(12) ぞ(1) 서술의(2) 의문의(1) ね(1) な(あ)(3)	い(1) ぞ(1) な(あ)(1) 금지나(1) 의문의(1) よ(4)	ぞ(1) のよ(2) かな(1) ぜ(1) よ(22) よね(1) 서술의(2)	よ(4) い(1) ぞ(1) 나(あ)(3)	よ(16) ぞ(2) ね(3) 의문의(3) かな(1) 나(あ)(1) 금지나(1)	かな(1) 나(あ)(1) ね(1) 서술의(1) よ(7)

					의문의(5) ね(2) 금지나(1) な(あ)(3) なよ(1)		명령나(1) なよ(2)		
	정중 체	よ(2) ぞ(1) ね(2)				よ(2) ね(1) な(あ)(1)	ね(2) よ(1)	よ(6)	
부녀 관계	부친 → 딸	보통 체	ぞ(19) かな(1) わ(1)よ(1) ぜ(1) のよ(1) な(あ)(12)	よ(8) ぞ(2) かな(2) ね(1) な(あ)(9)	ぞ(3) よ(5) ね(3)	かな(4) ぞ(47) よ(28) よな(5) い(1) 서술의(6) 의문의(2) 금지나(6) な(あ)(36) なよ(5) 명령나(2)	よ(1)	よ(2) い(1) ね(1) な(あ)(5)	ぞ(2) な(あ)(4) よ(1)
	정중 체	ぞ(5)	よ(2)						
부녀 관계	딸 → 부친	보통 체	かしら(2) よ(8) のよ(8) ね(1) わ(3) わね(1) わよ(5) 서술의(3) 의문의(4)	よ(6) わよ(2) わね(1) 서술의(2) 의문의(3) のよ(5) かな(3) ね(5) な(あ)(3)	よ(3) かしら(1) ね(1) 의문의(7) のね(1) のよ(1) わ(1)	かな(5) ぞ(11) よね(2) よ(22) 서술의(14) 의문의(14) ね(6) わ(1) なよ(1) な(あ)(36) 금지나(3)	わ(1) よ(1) 의문의(1) のよ(1)	ね(1) 서술의(3) 의문의(8)	ぞ(1) ね(1) 의문의(1) よ(2) わ(2) わよ(1)
	정중 체	ね(2)		ね(1) わ(1) わね(1)	よ(2)	ね(1)			
부자 관계	부친 → 아들	보통 체	ぞ(6) よ(12) わ(4) かな(1) ぜ(1) 금지나(2) な(あ)(4) 명령나(2)	い(1) ぞ(5) ぜい(1) よ(2) ね(1) 금지나(2) な(あ)(8) 명령나(1)	よ(1) な(あ)(4)	ぞ(6) よ(13) かな(2) 의문의(4) ね(2) なよ(1) 명령나(1) な(あ)(7)	ぞ(5) よ(4) 금지나(1) な(あ)(1)	ぞ(10) ぜ(1) かな(1) よ(7) 의문의(1) 금지나(3) な(あ)(12)	ぜ(15) ぞ(34) ね(1) 의문의(1) よ(11) な(あ)(37) 금지나(12) 명령나(1)
	정중 체		よ(1)						
부자 관계	아들 → 부친	보통 체	ね(1)	ぜ(1) ぞ(2) よ(3) な(あ)(1)	よ(2) ね(3) 서술의(1) な(あ)(3)	かな(1) い(1) ぞ(1) よ(7) よね(2) よ나(1) 서술의(2) 의문의(7) ね(2) な(あ)(3)	よ(2) ぜ(2) ぞ(1) 의문의(1)	かな(1) よ(12) 서술의(1) 의문의(8) な(あ)(1)	かな(1) ぞ(1) ね(2) 서술(2) 의문의(3) よ(31) よね(1) な(あ)(1)
	정중 체	ぞ(1) ね(1)		ね(1)	よ(1)	ね(1)	よ(1)	ね(3) よ(9) な(あ)(1)	

*시대물

(54) 모친: 唉や!!何です、これは?何を考えているのです?

딸: お母様大丈夫ですわ。わたくしがちゃんと案内いたしますから。

(55) 모친: 母は悲しいですわっ。

(56) 아들→모친: 母上...南方先生が来てくださいました...開けますぞ。

(57) 부친: ああ、おまえは何もわかっていないのだ。決してこのままではすまないですぞっ!!。

(58) 부친: しかし塩などヤミ商人がどんどん持ち込んで来る。甲斐にとっては痛くもかゆくもないわ。

*스프츠물

(59) 모친: コーヒーに毒いれるかい?

(60) 아들: 勝負しよ一ぜ。テツ! 부친: 今なんつった。

*탐정물

(61) 모친: 揚羽!どうしたの?! 딸:.....何でもありませんわ。お母さま。

*일상물

(62) 딸→부친: とうちゃん、早くしろ。おいてくぞー。

*이국물

(63) 아들: そのカンのよきでこの大逆を犯した者を見つけてほしいものですな。

*의·과학물

(64) 부친→아들: ラ、ランプが消えたぞ!!手術が終わったぞ!!

*액션물

(65) 모친→아들 あ~かわいそうによっ!!よっほどこわいめに.....!!だどももうだいぞうぶだぞっ!!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말의 종조사의 접속 양상을 보면 주로 보통체에 접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표현 ‘です・ます+の・わ・わよ・わね’ 등의 ‘お嬢様言葉’²¹⁾가 보였는데, 이 경우의 여성화자는 시대물과 이국물의 왕실분야, 탐정물에서 유서 있는 집안

21) 주2)와 같음. p163.

이나 집안의 격식을 따지는 출신의 인물이었다. 보통체와 접촉된 ‘이’ ‘ぞ’ 등의 남성성의 종조사는 남성화자 뿐 아니라 예(59)(62)(65)과 같이 여성화자에게서도 보였다. ‘이’를 사용한 여성화자는 액션물, 스포츠물, 의·과학물, 이국물 등에서 연배가 있는 연령층이었으며, ‘ぞ’를 사용한 여성화자는 예(65)와 같이 일상물, 액션물에서 어린아이 또는 기가 센 여성으로 인물의 특징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

[표 6] 대인관계가 부부인 경우[()의 숫자는 종조사의 사용수]

		시대물	스포츠물	탐정물	일상물	이국물	의·과학물	액션물	
부부사이	아내 → 남편	보통체	よ(3) ね(1) わ(1) わね(1) かしら(1) い(2) ぜよ(1) な(あ)(1)	ぞ(1) かしら(1) よ(2) よね(2) ね(2) わね(3) わよ(2)	ね(1) 의문의(1) のよ(2) わ(2) わね(1) わよ(2) よ(1)	わ(25) わよ(6) わね(2) ね(12) よ(23) よね(3) 서술의(43) 의문의(27) のよ(22) のね(2) かな(3) かしら(8) な(あ)(2)	わ(2) よ(4)	い(4) よ(8) のよ(2) わ(2) わね(1) ね(5) わよ(1) わよね(1) かしら(2) よね(1) 서술의(1) 의문의(7)	かしら(1) かな(1) ぞ(2) ね(1) 의문의(2) 금지나(2) 나(あ)(1) 나よ(1) のよ(1) よ(7) わよ(1)
		정중체	わ(4) 의문의(1) ね(1)	よ(5) よね(1)	의문의(1) わ(1)	よ(1)	ね(3) わ(1) わよ(1)	ね(1) よ(1)	
	남편 → 아내	보통체	ぜ(7) ぞ(12) い(2) よ(9) 서술의(2) 금지나(2) 나(あ)(13) 명령나(2)	い(1) よ(4) ね(1) 나(あ)(9)	よ(3) ぞ(1) ぜ(2) 금지나(1) 나(あ)(2)	ぞ(30) よ(53) ぜ(8) い(5) かな(7) よな(10) ね(8) なよ(3) 나(あ)(31) 금지나(4) 명령나(2) 의문의(2)	よ(3) 나(あ)(2)	よ(9) ぞ(1) ね(1) い(1) 나(あ)(7) 명령나(1)	ぞ(1) よ(1) 나(あ)(9)
	정중체		よ(4) ね(3)		よ(1)				

*시대물

(66) 남편:お龍...ほいたらわしは土佐へ向かうぜよ。5年ぶり実家に去ぬるつもりじゃ...

*스포츠

(67) 아내:よく飽きないわね.....おーい遅れるぞ。

*탐정물

(68) 아내:あなた本気ですの?婚約させるだなんて.....

남편:しかたないだろ!!あの子の幸せのためなら!!だまりなさい!!
おまえもくるんだぞ!!

*일상물

(69) 아내:我が娘ながらなんてやさしいんでしょ。 남편:当たり前だ。

おれの子だぞ。

*이국물

(70) 아내:元老院は私の提案を支持してくれたようですわ。

*의·과학물

(71) 아내:大みそかに、こんな早く閉店めちゃうそば屋があるかい!!

*액션물

(72) 아내:お弁当の用意ができたぞー! 남편:お!サンキュ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말에 오는 종조사의 접속 양상을 보면 대개 보통체에 접속한 편이었다. ‘わ’, ‘わよ’ 등의 종조사를 정중체와 접속한 인물은 주로 여성화자로, 시대물이나 이국물의 왕실 분야,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는 유서 있는 집안 출신의 영양에 해당되었다. 스포츠물, 의·과학물, 액션물에서는 예(67)(71)(72)와 같이 남성이 주로 사용한다는 ‘ぜ’ ‘ぞ’ ‘い’를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 사용했듯이, 종조사의 사용례를 보면 남녀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달리 예문만으로는 성차를 알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표 7] 대인관계가 형제자매인 경우[()의 숫자는 종조사의 사용수]

			시대물	스포츠물	탐정물	일상물	이국물	의·과학물	액션물
형제관계	형→남동생	보통체	よ(3) ぞ(3)	よ(38) い(1) かな(3) ぞ(17) ぜ(5) よな(2) 금지나(1) な(あ)(22) 명령나(2)	ぞ(1) ぜ(1) よ(3) 금지나(1)		よ(8) ぞ(4) 금지나(2) 나(あ)(4)	かな(1) ぞ(1) よ(1) ぜ(1) 나(あ)(2)	かな(6) ぞ(20) よ(4) 금지나(2) 나(あ)(32)
		정중체					나(あ)(2)	ね(1)	

	남동생 →형	보통체	ぞ(1) な(あ)(2)	よ(42) かな(1) よね(1) な(あ)(6) なよ(2) ね(15) 서술의(5) 의문의(7)	い(1) よ(2) ね(2) な(あ)(1)		わよ(2) かしら(1) ね(1) 서술의(4) のよ(1) 명령나(2)	ね(1)	かな(1) ぜ(2) ぞ(4) ね(3) 의문의(2) よ(7) 금지나(2) な(あ)(4)
		정중체					금지나(1) よね(1) よ(4) ね(3)	ね(1)	
자매관계	언니 →동생	보통체	よ(1) ね(1)		かしら(3) かな(1) ね(4) 서술의(8) 의문의(10) のよ(8) よ(7) よね(1) わ(12) わね(3) わよ(3) わよね(1) な(あ)(1)	よ(4) かな(1) わ(3) 서술의(1) 의문의(3) のよ(3) よね(1) ね(6)	ね(7) よ(6) よね(1) 서술의(1) 의문(7) のよ(6) のね(1) かな(1) かしら(4) わ(10) わよ(7) わよね(3)		
		정중체					ね(1)		
	여동생 →언니	보통체	의문의(1)		ね(1) よ(10) 서술의(8) 의문의(4) のね(1) のよ(2) わ(13) わよ(2)	よ(12) のよ(2) よね(1) ね(3) 서술의(1) 의문의(6)	よ(10) よね(1) のよ(1) わ(8) わよ(5) わよね(1) ね(2) かしら(1) 서술의(2) 의문의(7)		
		정중체							
남매관계	오빠 →여동생	보통체	ぞ(4) よ(4) 금지나(2) 명령나(1)	よ(11) かな(1) ぞ(1) ね(1) な(あ)(8) なよ(1)			よ(17) かな(1) ぜ(4) ぞ(7) なよ(1) 금지나(4) 명령나(2) な(あ)(14)	ぞ(2) よ(3) なよ(1) な(あ)(9) 금지나(3)	
		정중체							
	여동생 →오빠	보통체	かしら(1) な(あ)(1) わ(2) わよ(1) よ(5) 서술의(2)	かな(2) よ(3) よね(5) わね(1) わ(2) わよ(2)	의문의(3)	의문의(1) わよ(1)	よ(18) のよ(3) のね(1) わ(2) わね(1) よね(1)	서술의(1) な(あ)(1)	

		의문의(3) 의ね(1) ね(1) よね(1)	서술의(3) 의문의(6) ね(8) のよ(6) な(あ)(2)			서술의(3) 의문의(8) な(あ)(1)		
	정중체	わ(1)		わ(1)				
누나 → 남동생	보통체	かしら(1) 서술의(7) 의문의(8) ね(4) よ(4) のよ(10) わ(4) わね(2) わよ(6)	い(2) よ(3) ね(2)	かな(1) のよ(4) ね(1) 서술의(7) 의문의(4) のね(1) よ(4) わね(1) よね(1) な(あ)(2)	わね(1) わよ(1)	わ(1) よ(1) 서술의(1) な(あ)(2)	よ(7) わね(1) わよ(1) のね(1)よ ね(2) ね(6) のよ(1) 서술의(3) 의문의(6) 명령나(1)	な(あ)(1)
	정중체			ね(1)				
남동생 → 누나	보통체	よ(13) かな(1) ぞ(1) ぜ(1) よね(1)	よ(1) わ(1) ね(1)	よ(9) い(1) ぞ(1) 서술의(1) 의문의(2) ね(4) よな(1) なよ(1)	わ(1)		よ(13) かな(1) ぜ(1) よな(1) よね(1) ね(3) 의문의(3) な(あ)(3)	
	정중체					ね(1) よ(1)		

*시대물

(73) 누나:行くよ!裕太郎. 남동생:待ってよ. ちい姉.

*스포츠물

(74) 여동생:身長は190近くあるかなあ. バスケットは初心者なんだけどー
ゼットイストグイ選手になるから!

*일상물

(75) 여동생→언니:これ2、3個あげよう. きっと喜ぶわ.

*탐정물

(76) 여동생→오빠:お兄様、私語はお慎みになって.....異家の品格に
関わりますわ.

*이국물

(77) 누나:なにガラにもなく照れとんねん. アホ! 남동생:やかましい
わ!!誰が照れて.....

(78) 남동생→형:強くなったわよ!あたしがいなくても...全然大丈夫

じゃないの!

(79) 형:ザナンザあととはまかせるぞ。わたしはひと足先にもどらせて
もらう。

(80) 언니:でもそうなるまでにはまだ難問が山積みよ 여동생:わかって
るけどうれしいわ♡

*의· 과학물

(81) 여동생:その通りです。母も霧島の家を出るそうです。

오빠:バカな!NGOってのはできない医者が行くところだぞ。

*액션물

(82) 형→남동생:よ—し。慣れてきた!!もともと近づいてもいいぞ!!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 관계가 형제자매일 때, 종조사는 대개 보통체에 접속한 편이었다. 정중체와 접속한 예는 시대물, 이국물의 왕실분야, 탐정물의 유서 있고 격식 있는 집안에서의 손아래의 남성화자와 여성화자에 게서 소수 보였다. 여성화자는 예(76)(80)와 같이 ‘정중체+わ’, ‘わ+♡’의 사용이, 남성화자는 예(79)(81)처럼 ‘ぞ’의 사용이 보인바와 같이 성차가 식별될 수 있는 표현이 있던 반면에, 예(77)(78)의 ‘わ’ ‘わよ’의 사용례처럼 장면 및 상황,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 없이 예문만 제시될 경우 화자의 성차를 혼동할 수 있는 표현도 보였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사용된 종조사가 문말의 정중체(デス・マス형)과 보통체에 후접한 양상을 보면, 상하관계가 뚜렷하거나 가족 위계질서가 확고한 부분에서 정중체에 접속된 경향을 보였지만, 대개는 보통체에 종조사가 접속된 경우가 많았다. 가족 구성원의 남성화자는 ‘ぞ’ ‘ぜ’ ‘よ’ ‘な’, 여성화자는 ‘わ’ ‘のよ’ ‘かしら’의 사용이 일반적인 것처럼 남녀 성차를 식별할 수 있는 어휘로서도 제시되기도 했지만, 여성화자의 ‘ぞ’ ‘ぜ’ ‘い’의 사용과 남성화자의 ‘わ’ ‘のよ’ ‘かしら’의 사용이 있던 것처럼 예문만으로는 남녀 식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남녀식별의 마카가 되는 종조사가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여성어 남성어로서의 획일적인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니었으며 인물의 특성과 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수매체로서 이용할 때는 인토네이션과 병행해 장면이나 인물

의 특성, 상황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V. 맺음말 및 금후 과제

본고는 가족이라는 대인관계 안에서 사용된 대화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정중도와 종조사의 사용에 대해 한국인 학습자의 교수학습의 매체로서 분석했다. 가족 간의 대화 속에 나타난 문말의 정중체(デス・マス형)와 보통체 사용을 보면 시대물과 이국물의 왕실 분야에서 정중체 사용이 많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대부분 보통체를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유서 있고 가족 위계질서를 따르는 가풍 안에서는 정중체의 사용이 보였다. 한편 현대물에서 보인 일부 순위 인물의 정중체 사용에는 훈계, 조롱, 단언 등의 의도가 보였다. 실질 교재 속의 가족 간의 화자의 정중체와 보통체의 사용은 상하관계라는 프레임 속에만 간혀 발화된 것이 아니라 장면이나 상황,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에 따라 좌우되어 나타났다. 대화문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정중체(デス・マス형)가 ‘합쇼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로, 보통체가 ‘해요체’ ‘해체’로 번역되는 등 일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매체로 사용할 때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예문 선정과 장면에 따른 부가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종조사가 문말에 접속된 양상을 보면, 상하관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분야이거나 가족 위계질서가 확고한 부분에서 정중체에 접속된 경향을 보였지만, 대개는 보통체에 종조사가 접속된 경우가 많았다. 성차를 식별할 수 있는 종조사가 남성어 여성어로서 규정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문장만으로는 남녀 식별에 혼동이 되는 경우도 보였다. 따라서 교수매체로 이용될 때는 장면 상황 및 세대별 특징과 인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에 맞춰 예문 선별도 고려해야만 한다. 또 남녀차가 있는 일본어 종조사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かな’ ‘かしら’는 ‘…ㄴ까?’로, ‘わ’와 ‘ぞ’는 ‘……어(아)’로, ‘わよ’와 ‘ぜよ’ 등도 ‘…어요(아요)’로 나타난 것처럼 남녀차이가 배제되어 번역되어 있으므로 교수 학습에 있어서 주의 및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가족의 범위를 넘어 대인관계를 확대해 가상세계에 발화되는 문말 표현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 申致澈,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휘비교 연구』, 어문학사, 2009.
- 井出洋子, 『日英比較講座第5巻文化と社会 -待遇表現と男女差の比較-』, 大修館, 1992.
- 内田伸子, 「会話行動に見られる性差」, 『日本語学』第12巻 第6号, 1993.
- 小川早百合, 「現代の若者会話における文末表現の男女差」, 『日本語教育論文集一 小出調子先生退職記念一』, 凡人社, 1997.
- 金水敏, 『ヴァーチャル日本語役割語の謎』, 岩波書店, 2003.
- 佐藤武義, 『展望現代の日本語』, 白帝社, 1996.
- 名柄迪, 『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敬語』, 荒竹出版, 1995.
- _____, 『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 助詞』, 荒竹出版, 1995.
- 杉山純子, 「インフォーマルな会話の文末表現に表われる女性語・男性語をめぐる作家の個性—吉本ばなな『アムリタ』と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 岐阜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第2号, 1999.
- 高見澤孟,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2』, アスク, 2004.
- 辻村敏樹, 『敬語論考』, 明治書院, 1992.
- 中村桃子, 『翻訳がつくる日本語』, 白澤社, 2013.
- 中村純子, 「終助詞における男性語と女性語」, 信州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1, 2000.
- 林大 外,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修館, 1990.
- 増岡隆志·田窪行則,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 1992.
- 安田芳子外, 『現代日本語における男女差の現れと日本語教育』, 小出記念日本語教育論文集7, 1992.

사용자료

시대물

『なんて素的なジャパネスク』(1981-1993)전권 『武田信玄』(1997)전권 『仁』(2001-2011)
전권.

스포츠물

『タッチ』(1981-1986)전권 『スラムダンク』(1990-1996)전권.

탐정물

『シティーハンター』(1985-1992)전권 중 23권 『金田一少年の事件簿』(1992-2001)
전권.

일상물

『ドラエモン』(1969-1970)전권 중 2권 『君の手がささやいている』(1992-1997)전권
중 5권.

『のだめカンタービレ』(2001-2009)전권 『よつばと!』(2003-2006)전권 중 4권.

이국물

『ふしぎ遊戯』(1992-1996)전권 『天は赤い河のほとり』(1995-2002)전권.

의·과학물

『20世紀少年』(1999-2006)전권 『医龍』(2002-2011)전권.

액션물

『ドラゴンボール』(1984-1995)전권.

❖ ABSTRACT

The Expression of Ending Sentence in Family Conversations in the Virtual Language

- Focusing on Politeness and Sentence-final Particle with Instructional Media -

Yang, Jung-Soon

This paper was analyzed the politeness and the expression of ending sentence in family conversations in the virtual language of cartoon characters.

Younger speakers have a tendency to unite sentence-final particle to the polite form, older speakers have a tendency to unite it to the plain form in the historical genre. But younger speakers and older speakers unite sentence-final particle to the plain form in other fiction genres.

Using terms of respect is determined by circumstances and charactonym.

Comparing the translation of conversations with the original, there were the different aspects of translated works. When Japanese instructors are used to study Japanese as the instructional media, they give a supplementary explanation to students.

‘WA’ ‘KASIRA’ that a female speaker usually uses are used by a male speaker, ‘ZO’ ‘ZE’ that a male speaker usually uses are used by a female speaker in the virtual language of cartoons. In the field of the translation, it is translated ‘KANA’ ‘KASIRA’ into ‘KA?’, ‘WA’ ‘ZO’ ‘ZE’ into ‘A(EO)?’, ‘WAYO’ ‘ZEYO’ into ‘AYO(EOYO)’. When we use sentence-final particle in the virtual language of cartoon, we need to supply supplementary explanations and further examinations.

Key Words

정중도, 문말표현, 성차, 종조사, 실질교재

politeness, expression of ending sentence, gender, sentence-final particle, authentic materials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